

## 20대 초반, 일에서 멀어지다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학교에서 일터로(School-to-Work)' 이행, 2009년→2024년

[2부작 중 1편 · 청년 이행기의 지형]

20~24세 청년의 '취업' 비중이 2009년 45%에서 2024년 31%로 14%p 하락한 반면, NEET(비재학·비취업)은 13%에서 19%로 상승함. 다만 이러한 악화는 20대 초반에 집중되며, 25~34세는 오히려 개선되어 노동시장 안착이 30대로 미뤄지는 '이행 지연' 양상임. 단, 이 '안착'은 다수 코호트의 평균 경로로, 동일 세대를 추적한 분석(이슈브리프 No.313)은 팬데믹 진입·2000년대 코호트 일부가 흡수되지 못하고 '쉬었음'으로 잔존함을 보여줌 — 즉 지연은 대다수에게 회복되지만 일부에게는 고착됨. 성별 흐름도 엇갈려 20대 남성의 근로시간은 줄고 30대 여성은 159분에서 244분으로 급증함. 이에 청년 정책은 '일자리 총량' 관리를 넘어 ①20대 초반의 이행 지원, ②고착 위험 코호트의 조기 포착, ③30대 여성의 일·가정 양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음.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쉬는 청년 70만 시대』를 넘어, 청년의 24시간 시간배분으로 '학교-일터(School-to-Work) 이행'의 지형 변화를 추적할 필요

- (시의적 맥락) '쉬는 청년 70만'이 일상어가 되고 청년 고용·NEET가 매년 국정 현안이나, 고용통계는 청년이 '취업했는가'라는 단면만 보여줌
- (기존 인식의 한계) 고용률·NEET율은 '상태'의 단면만 제시할 뿐, 같은 비율 안에서 청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일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보여주지 못함 — 같은 'NEET 19%'라도 그 내부의 시간 사용은 크게 다를 수 있음
- (자료의 강점) 생활시간조사는 청년의 상태(재학·취업·NEET)와 하루 24시간 배분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임
- (분석 틀) 청년기를 학교에서 일터로 가는 이행기로 보고, 2009·2014·2019·2024 네 시점에서 같은 연령대의 시간배분 지형 변화를 '연령 고정 시계열 비교'로 추적함

생활시간조사란? 통계청이 5년마다(1999년 시작, 2024년 제6회) 실시하는 국가통계. 만 10세 이상 국민이 하루 1,440분을 10분 단위 시간일지에 기록해, 잠·일·학습·여가 등 24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전국 자료임. 회차마다 조사 시기가 달라, 시계열 비교에는 9월 기준 가중치를 사용함.

- (분석의 차별성) 단순 시계열·횡단 통계와 달리, 연령을 고정해 같은 연령대의 10여 년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세대가 바뀌며 이행 경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직접 포착함
- (시리즈 구성) 본 분석은 청년 이행을 세 배율로 본 연작의 가운데에 위치함 — 이슈브리프 No.313(거시·동태)이 경찰조사로 ‘어느 세대가 언제 막히는가’를 코호트로 추적했다면, 본 편(중시·지형)은 생활시간조사 단면으로 ‘청년기 어느 구간에서 지형이 갈리는가’를, 다음 편(No.321, 미시·하루)은 ‘NEET 청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다룸. 본 편의 단면이 갖는 한계(같은 사람을 추적하지 못함)는 이슈브리프 No.313의 코호트 분석이 보완함

## 02 분석 결과: 20대 초반의 이행 지연과 30대로의 안착 이동

### 20대 초반에서 ‘일하는 청년’이 빠르게 줄고, 그 자리를 NEET가 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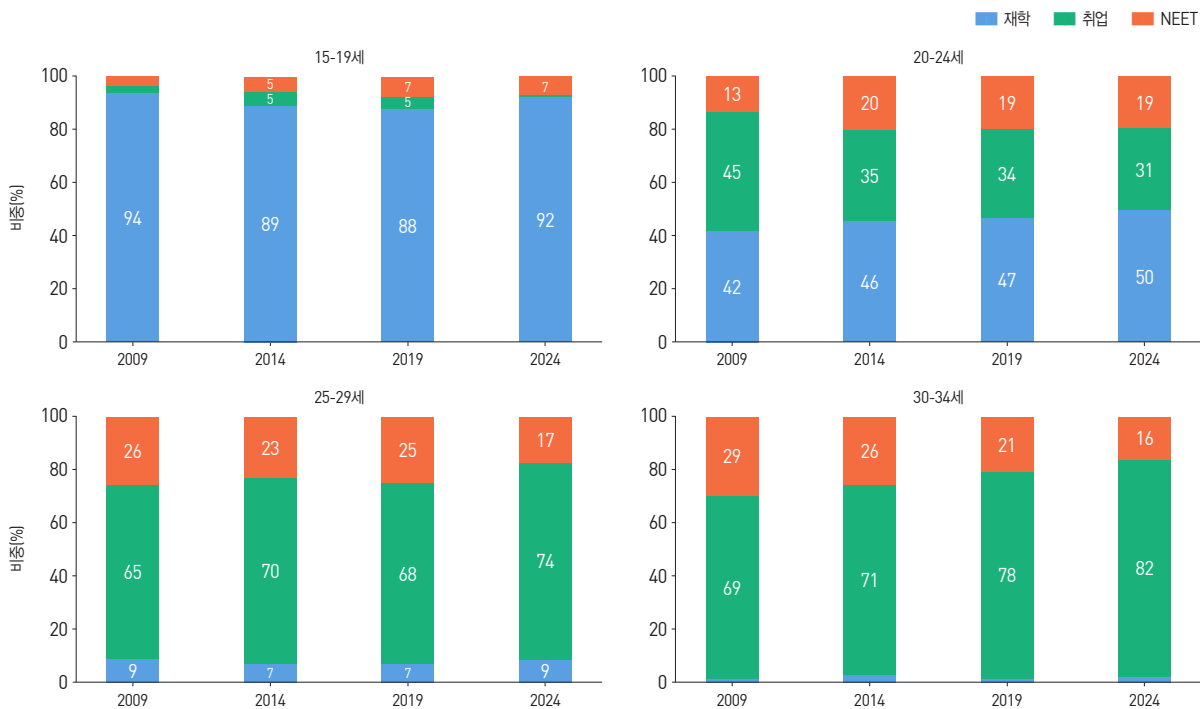


그림 1 | 청년 연령군별 재학·취업·NEET 구성 변화(2009→2024). 막대 합 = 100%

재학=현재 재학 / 취업=경제활동상태 '일을 하였음' 일시휴직 / NEET=비재학·비취업(가사·육아 포함). NEET 내부(구직형/침형/가사·육아)는 무직사유로 추가 분해 가능(2014~)

- 취업 비중은 2009년 45%→2024년 31%로 14%p 하락, NEET는 13% → 19%로 상승해 최근 5년째 19% 안팎에서 하방 경직적임
- 재학 비중 증가(42% → 50%)를 감안해도, 학교를 떠난 청년이 일터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간이 두꺼워짐
- (의미) 20대 초반 NEET 19%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5년째 유지되는 구조적 수준으로, 청년 이행의 ‘출발점’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악화는 청년기 전반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집중 — 이행의 ‘입구’가 좁아짐

- 같은 기간 25~29세는 취업 65% → 74% 상승·NEET 26% → 17% 하락, 30~34세도 취업 69% → 82%로 개선되어, 악화가 20대 초반 구간에 국한됨
- (해석) 진입 직후 구간만 약해지고 이후 연령에서 회복되는 패턴은, 청년이 일터에 닿는 ‘시점’이 늦춰질 뿐 평균적으로는 결국 흡수됨을 시사 → 문제의 본질은 ‘진입 실패’가 아니라 ‘진입 지연’임. 다만 본 분석은 서로 다른 사람을 비교한 단면이므로 ‘흡수’는 추론이며, 동일 코호트를 추적한 이슈브리프 No.313은 그 평균 뒤에서 팬데믹·2000년대 코호트 일부가 흡수 경로를 이탈해 고착됨을 확인함 — 따라서 ‘지연’은 다수의 회복 경로와 소수의 고착 경로로 갈림
- (함의) 정책의 1차 표적은 20대 초반의 ‘진입 입구’이며, 이 구간의 체류가 길어질수록 상흔·고착 위험이 커짐

평균만의 변화가 아니라, 근로시간 분포 전체가 ‘덜 일하는’ 쪽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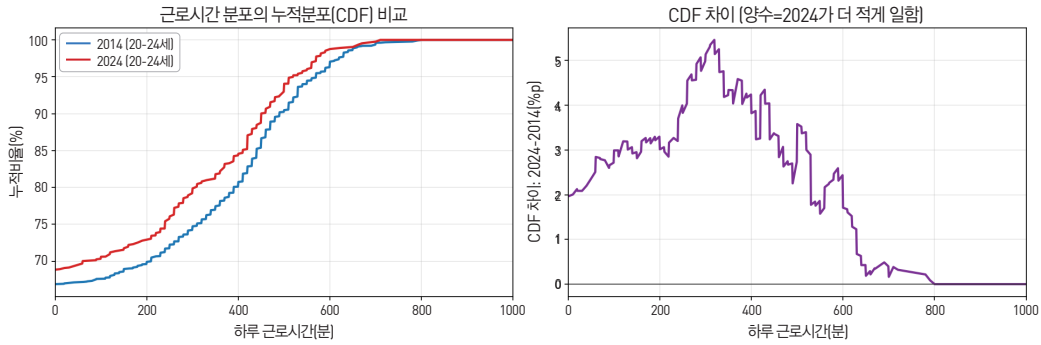


그림 2 | 20-24세 하루 근로시간 분포의 누적분포(CDF) 비교(2014 vs 2024)

가중 ECDF, 하루(주말 포함) 단위, 결과: 2024가 2014를 1차 지배(FSD): 2024 청년이 모든 분위에서 근로 ≤

- 20~24세 하루 근로시간 누적분포를 비교하면 2024년이 모든 구간에서 2014년보다 위에 위치 — 통계적으로 ‘1차 확률지배(FSD)’가 성립함
- (해설) 평균만 보면 ‘조금 감소(137분 → 117분)’로 끝나지만, 분포 전체로 보면 많이 일하던 청년도, 적게 일하던 청년도 모두 근로시간이 줄어든 ‘전반적 후퇴’임
- (함의) 일부 취약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초반 전반의 노동 투입이 약화된 것으로, 표적 집단을 좁게 잡는 접근의 한계를 시사함

확률지배(Stochastic Dominance, SD)란? 두 분포의 우열을 평균값 한 점이나 분포 전체로 비교하는 방법. 한쪽 분포의 누적비율이 모든 구간에서 다른 쪽보다 높으면 ‘1차 확률지배(FSD)’가 성립하며, 이는 어느 기준(분위)으로 잘라 보아도 한쪽이 일관되게 더 작은(또는 큰) 값을 가짐을 뜻함. 본 분석에서는 2024년 20~24세의 근로시간 누적분포가 모든 구간에서 2014년보다 위에 놓여, 평균(137분→117분)뿐 아니라 분포 전체가 ‘덜 일하는’ 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함.

노동시장 안착 시점이 한 세대 만에 20대에서 30대로 이동

- 30~34세 취업 비중은 69% → 82%로 상승, NEET는 29% → 16%로 하락함
- 과거 20대에 끝나던 이행이 30대 초반에야 마무리되는 ‘늦어진 안착’ 양상임
- (해석) 20대 초반의 지연이 30대 초반의 안착 강화로 상쇄되는 듯 보이나, 이는 안착의 ‘시점 이동’일 뿐 청년기 전체의 일 경험 총량 증가를 뜻하지는 않음. 또한 단면상의 안착 강화가 모든 코호트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30대까지 ‘쉬었음’을 잔존시키는 상흔 코호트(No.313)가 평균에 가려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정책 함의) 정책의 시계(視界)를 20대에 한정하지 말고, 30대 초반까지 ‘확장된 청년기’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청년기 노동의 성별 지도가 다시 그려짐 — 20대 남성은 늦어지고, 30대 여성은 빨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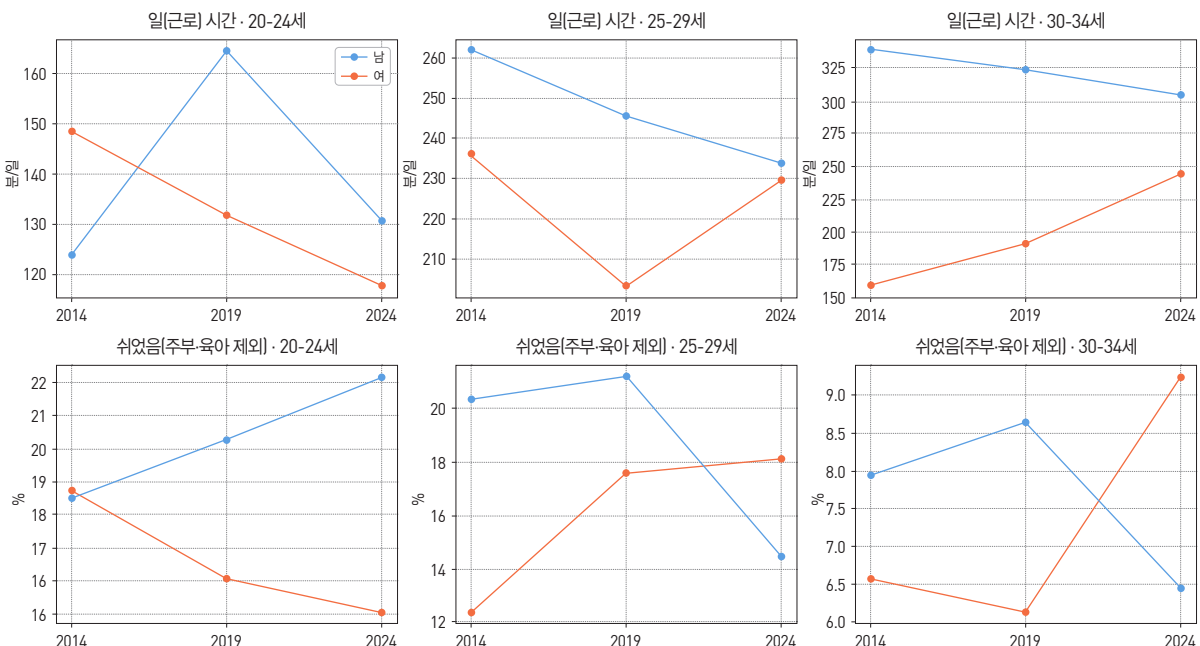


그림 3 | 성별·연령군별 하루 근로시간과 ‘쉬었음’ 비율 추이(2014→2024)

- 20대 초·중반 남성의 근로시간은 감소, 30~34세 여성의 근로시간은 159분(2014) → 244분(2024)으로 급증함
- (남성) 20대 남성은 근로시간 감소와 함께 '쉬었음'(주부·육아 제외) 비율이 18.5% → 22.2%로 상승, 이행 지연이 남성에서 더 뚜렷함
- (여성) 30대 여성은 노동 참여가 강해지나 '쉬었음' 비율도 6.6% → 9.2%로 동반 상승, '일과 돌봄의 병존·이탈'이 공존함
- (의미) 성별 격차 축소가 곧 '평등한 안착'을 뜻하지는 않으며, 남성은 진입 지연·여성은 일·돌봄 병존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됨

### 03 시사점: 무게중심을 '총량'에서 '이행 경로'로

#### 청년 정책의 무게중심을 '일자리 총량'에서 '이행 경로'로 이동

- 본 편의 진단은 연작의 가운데 고리임. 이슈브리프 No.313이 '언제·어느 세대가' 막히는지(동태)를, 본 편이 '청년기 어디서' 지형이 갈리는지(지형)를 보였다면, 다음 편(No.321)은 '그 멈춤이 하루에 어떻게 새겨지는지'(미시)를 보임. 세 편을 관통하는 명제는 하나임 — 대다수 청년은 지연 후 흡수되지만, 일부 코호트는 고착되며 그 일부가 정책의 핵심 표적임
- (총량 지표의 한계) 고용률·NEET을 같은 총량 지표는 '얼마나'는 보여주나 '누가·언제·어떻게' 막히는지는 보여주지 못해, 정책 표적을 놓치기 쉬움
- 20대 초반의 이행 지연과 30대 여성의 노동 확대는 상이한 처방을 요구 → 분석 결과(진단)와 정책을 1:1로 대응함

목표집단	진단(분석 결과)	정책 방향	구체적 수단
20대 초반(이행기)	취업 45%→31%, NEET 13%→19% — 학교-노동 이행 지연	이행기 밀착 지원	직업훈련 연계, 일경험·인턴십,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대 초반 여성	근로시간 159분→244분 급증, 돌봄과 병존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확충, 유연·재택근무, 경력단절 예방
청년 전반	연령·성별로 시간배분 지형이 갈림	총량 넘어 맞춤 설계	연령군·성별 표적 지표 관리, 이행경로 추적
고착 위험 코호트	팬데믹·2000년대생 일부가 흡수 경로 이탈, 30대까지 '쉬었음' 잔존(No.313)	조기 포착·이탈 방지	코호트별 이행 추적, 비활동 장기화 경보, 관계·일상 회복 선행(→ No.321)

- (실행 원칙 1) 20대 초반은 '진입 이전' 단계 지원에 집중 — 진입 지체가 고착으로 굳기 전에 일경험·훈련으로 조기 연결
- (실행 원칙 2) 30대 여성은 '잔류·복귀' 지원으로 무게 이동 — 돌봄과 일의 병존을 전제한 유연근무·돌봄 인프라가 핵심
- (공통) 고용률 외에 '연령군·성별 시간배분'(본 편)과 '코호트별 이행 시점·상훈'(No.313)을 함께 보는 모니터링 지표 체계를 도입할 필요 — 단면 지표(누가·어디서)와 동태 지표(어느 세대가·언제)를 한 화면에서 읽어야 표적을 놓치지 않음

▶ 이 Issue Brief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09·2014·2019·2024, 9월 기준)를 재분석한 결과임  
 ▶ 분석 대상: 청년 15~34세, 5세 연령군. 상태 분류: 재학 / 취업 / NEET(비재학·비취업)  
 ▶ 본 브리프는 2부작 중 [1편: 이행기 지형]이며, [2편]은 NEET 청년의 하루(시간활용·생활리듬·고립)를 다룸